

넉점반

연석중

아기가 아기가 가갓집에 가서
 "영감님 영감님.
 엄마가 시방 몇 시냐구요."
 "넉 점 반이다."

"넉 점 반? 넉 점 반"
 아기는 오다가 물먹는 닭
 한참 서서 구경하고.

"넉 점 반? 넉 점 반"
 아기는 오다가 개미 거동
 한참 앉아 구경하고.

"넉 점 반? 넉 점 반"
 아기는 오다가 잠자리 따라
 한참 돌아다니고.

"넉 점 반? 넉 점 반"
 아기는 오다가
 분꽃 따 물고 나니 나니나
 해가 꿀떡 저 돌아왔다.

"엄마, 시방 넉 점 반이래."

(1940년)



‘어린이날 노래’ ‘낮에 나온 반달’ ... 우리 귀에 익숙한 동요의 시를 남긴 윤석중선생님의 작품 ‘넉 점 반’입니다. 1940년대의 어린이와 오늘의 어린이, 그 마음속이야 다를 게 뭐 있을까요? 순수,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존재하는 어린이의 세상-집에 시계 하나 변변히 없어 몇 시냐 물어보고 오라 했더니 아기는 사방 돌아다니며 온갖 구경 다 하고 와선 엄마 시방 넉점 반이야-(엄마 지금 네 시 반이야-) 그러니까!?! 참 예쁘고 귀엽지요? 이런 마음으로 노래하면 삶이 좀 더 행복하겠지요?

분꽃이 피어나는 향긋한 봄날 저녁을 상상하면서-

〈글/김영숙 (시인, 해오른누리 기획실장)〉